

맞벌이부부의 둘째 자녀 출산의도와 출산기피 요인 탐색 연구*

마미정**

요 약

그동안 대다수의 출산관련연구가 저출산의 원인분석에 있어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요인을 설정하고 영향요인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저출산 해결의 실질적 주체인 부모의 입장에서 그들의 출산의도와 기피요인을 분석하려는 접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본 연구는 맞벌이 아내와 남편이 스스로 제시한 둘째 자녀의 출산의도와 기피요인을 탐색하는데 연구 목적을 두었다. 이에 한 자녀 맞벌이 아내와 두 자녀 맞벌이 아내 1200명, 맞벌이 남편 600명에게 둘째 자녀 출산의향을 설문하여 이 내용을 바탕으로 맞벌이 아내와 남편의 둘째 자녀 출산의도와 기피요인을 5개 요인으로 각각 분석하였다. 분석된 요인들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위해 델파이 기법을 활용한 전문가의견 스크린과정을 3차 실시하였다. 분석된 요인에 대한 심층적 확인과 맥락적 동일성을 위해 한 자녀 맞벌이 아내와 남편 각각 40명을 초점집단으로 선정하여 둘째 자녀 출산의도와 기피내용을 요인별로 사례 분석하였다. 분석된 둘째 자녀 출산의도와 기피요인을 맞벌이부부 400쌍에게 설문하여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맞벌이부부의 둘째 자녀 출산의도 요인은 정서적 자녀 가치관 요인이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자녀 출산기피 요인은 자녀양육지원 요인이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의의는 실제 둘째 자녀 출산을 의도하고 기피하는 맞벌이부부의 직접적인 이유를 살펴보고자 했으며, 그 결과 그들의 입장에서 제시된 둘째 자녀 출산의도와 기피요인을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것이다.

주제어 : 둘째자녀, 출산의도, 출산기피

논문 제출일 : 2008. 02. 13

최종 심사일 : 2008. 04. 19

* 이 논문은 2008년도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의 일부임.

** 인천광역시 보육정보센터장

Corresponding Author : Ma, Mi-jong, Dept. of Incheon Educare Information Center 1127,
Guwol1-dong, Namdong-gu, Incheon-si, Korea, 405-835. E-mail : mamije@naver.com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재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발전과 그로 인해 파생된 사회 전반적인 변화 중 ‘저출산’에 의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대안마련에 매우 중점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현재의 경제발전이 그에 따른 물질적 풍요라는 이점을 가져오기는 했으나,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는 미래 생산활동인구의 원활한 공급에 심각한 걸림돌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현재의 ‘저출산’ 현상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분석을 통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이러한 저출산과 관련된 문제해결을 위해 국가에서는 국회의 ‘특별위원회’ 및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저출산 종합 대책인 ‘둘들 플랜’, ‘희망한국 21-저출산·사회안전망 개혁방안’ 등 다양한 정책과 지방자치 단체의 출산장려금 지급 및 출산축하용품 지급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김승권, 2005). 또한 정부의 ‘저출산’ 관련 부처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정책들이 저소득층 지원이나 보육료지원 등 출산율 하락의 현상적인 문제해결 및 단기적인 정책에 치우쳐 사회구조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정책의 효과성이 미흡한 실정이다(장혜경 외, 2004; 이인숙, 2005). 따라서 ‘저출산’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사회구조의 전반적인 변화를 모색하여 정책의 실효성이 함께 갈 수 있는 연구방향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이재경 외, 2005).

그동안 ‘저출산’에 관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분석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즉, 가족계획사업의 결과를 저출산의 원인으로 보거나(김수연, 2004; 박병일, 2004) 인구학적 맥락에서 혼인 지연이나 독신가구의 증가 등을 원인으로 제시하거나(전광희, 2003; 김승권 외, 2004; 최경수, 2004).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에 따른 가치관 변화와 자녀 교육비 부담을 주원인으로 제시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윤옥화, 2004; 조아라, 2005; 이삼식, 2005; 정상훈, 2005).

그러나 ‘저출산’에 관한 그동안의 국내 연구는 주로 인구학적, 사회학적, 경제학적 관점 등으로 구분되어 그 원인을 일반적인 관점으로 파악해 왔으며, 그 결과 마련되고 실행된 정책 역시 일반적인 관점의 시각에서 수립됨으로써 정책적 실효성과 실제 수요자의 체험적 효과

성이 미미하게 느껴져 왔다. 왜냐하면 저출산의 원인은 일반적인 것으로 정리될 수 있으나, 정책을 실현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원인이라도 가장 개별적인 접근에서 모색되어야만 정책의 효과성과 목적성이 일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더 이상 가족구조에서 맞벌이부부라는 가족유형이 낯설게 여겨지지 않고 있다(통계청, 2006). ‘2006년 사회통계조사 결과’에서 ‘지난 한 달간 남편·부인 모두가 일을 계속하거나 시작한 부부’ 비율이 43.9%에 달해 국내 ‘맞벌이부부’ 비중이 절반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이제 맞벌이부부라는 가족유형에 맞춰 저출산 대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6년 출산율이 OECD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1.17명인 상황에서 인구대체를 2.1명으로 출산율을 증가시켜야 할 필요성으로 볼 때 첫째 자녀에 대한 출산보다 둘째 자녀 출산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기존의 저출산 관련 연구 및 맞벌이, 취업여성 등의 관련 연구가 연구자가 연구 목적에 맞게 설문지를 제작하여 관련 변인의 영향분석을 제시한 입장(정혜옥, 2006; 박현주, 2006; 김자희, 2006; 이소영, 2007; 이정원, 2007)에서 벗어나 실제 출산을 의도하고 기피하는 맞벌이부부의 입장에서 제시한 이유를 분석함으로써 맞벌이부부의 둘째 자녀 출산의도와 기피 요인을 구체적으로 밝혀보고자 하였다. 특히 출산이라는 과정이 부부의 합의 및 이해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입장에서 대부분의 기존 연구가 아내의 입장에서 저출산 원인을 분석한 것에서 벗어나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개별적 원인을 밝힘으로써 좀 더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접근을 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구조화된 설문형태에서 벗어나 출산 당사자인 맞벌이 남편과 아내에게 자기보고식 개방질문을 제시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맞벌이 아내와 남편의 출산의도와 출산기피를 요인별로 각각 분석하였고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여 분석된 요인에 대한 맥락적 연계성을 밝혔으며, 분석된 요인간의 객관적 검증을 위해 신뢰도와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그동안 공급자의 입장에서 제시되었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저출산 안정화대책’을 수요자의 입장에서 재분석하여 다양한 취업여건과 양육여건에 있는 맞벌이부부에게 보다 필요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출산 및 자녀양육 지원정책의 수립을 위한 근거있는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맞벌이부부의 둘째 자녀 출산의도 요인은 무엇인가?

1-1. 맞벌이 아내의 둘째 자녀 출산의도 요인은 무엇인가?

1-2. 맞벌이 남편의 둘째 자녀 출산의도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맞벌이부부의 둘째 자녀 출산기피 요인은 무엇인가?

2-1. 맞벌이 아내의 둘째 자녀 출산기피 요인은 무엇인가?

2-2. 맞벌이 남편의 둘째 자녀 출산기피 요인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출산 관련 이론

1) 차별 출산력 이론

차별출산율(differential fertility)이란 개인의 인구·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출산율의 차이(예: 교육수준의 차이, 개인의 종교적 배경의 차이, 도시와 농촌 거주자의 차이 등)를 말하는데 사회의 규범과 기호의 형성을 통한 행동 및 개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사회규제적인 면을 강조한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문화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배경이 연구대상이 되는가에 따라 출산력의 차이가 나타난다(이소영, 2007).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어떻게 출산력과 연관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전체사회의 수준에서 사회경제적 요인과 출산력과의 관계를 여러 시점들 사이에서 이들 각각이 어떻게 변하였는가를 살핌으로서 고찰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 근거하여 인구 및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차별출산력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특히 출산력변동은 제반 사회경제적 변화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데 한국의 경우 1970년대부터 출산력 저하가 이루어지

면서 출산력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출산행위를 결정하는 개인의 특성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교육수준, 아내의 경제활동, 소득수준 및 아내의 결혼연령 등이 출산력에 영향을 주로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이인숙, 2005). 1980년대에 출산율이 급격한 하락을 지속하면서 피임 및 출산관련 내용에 추가하여 모자보건사업의 내용이 포함되었으며(김승권, 2003). 출산수준에 영향을 주는 개인특성변수의 내부구조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장창곡, 김응석, 1988). 1990년대의 출산율 저하와 관련하여 김한곤(1993)은 사회경제적 발전지수, 아내의 지위, 가족계획사업지수(불임시술률) 등의 변수를 포함한 거시적 분석과 학업정도, 결혼 전 노동력 참여여부, 초혼연령, 결혼 후 현재의 고용상태, 남편 직업의 유형, 피임실천여부, 이상적인 자녀수 등의 변수를 포함한 미시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저출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19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의 연구는 출산력의 전환과 인구증가억제 정책의 폐지에 따른 대응전략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두었다(조남훈, 1997; 김승권, 조애지, 2000; 김승권, 김민자, 2003).

한편으로 출산력의 차이는 대상 부부의 연령, 교육정도, 종교, 사회계층과 같은 인구학적 및 사회학적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결정된다(Kramer, 1987). 따라서 인구학적 요인에서는 결혼연령의 상승과 이로 인한 출산의 연기, 그리고 유배우자의 출산력 저하가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으며(Toulemon, 2001). 출산 연령 패턴의 변화로 이루어지는 코호트 관점에서 설명하기도 한다(Frejka and Calot, 2001). 25~45세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한 차경옥(2005). 윤소영(2005)의 연구에서는 여성의 연령이 낮을수록 둘째자녀 이상의 자녀를 출산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배우 부인을 대상으로 한 김승권 외 5인(2001)의 연구에서 부인의 연령은 자녀수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남편의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수의 자녀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요인에서는 주로 교육수준과 소득수준, 취업여부 혹은 경제활동 여부와 관련하여 출산력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이 출산력 저하에 미치는 영향은 초기 출산력 저하에 직간접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나타났다(Davis, 1982; 김한곤, 1993; 김승권 · 서문희, 2001). 특히 최근에는 출산력 저하에 간접적인 영향 요인으로 가치관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결혼 및 출산과 관련된 가치관, 남아선호 등이 출산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이삼식 · 조남훈, 2000; 이병렬, 2003). 아울러 자녀에 대한 가치관도 출산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자녀의 필요성이 높을수록 현존자녀수가 많은 결과를 보인다(조남훈 · 김승권, 1997; 김승권 · 조애지, 2000; 김승권 · 서문희, 2001).

2) 자녀의 경제적 효용이론

출산력에 대한 경제적 관점은 1950~1960년대 Leibenstein의 ‘한계효용이론’과 Becker가 제시한 ‘소비수요이론’을 기준으로 한 미시경제학적 분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들에 의하면 한 가구의 출산력 수준은 주어진 가구소득의 제약 하에서 부모의 소비, 자녀의 소비 등을 고려하여 가구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녀출산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인 부모들은 결정에 앞서 자녀출산으로 얻게 되는 경제적 효용과 자녀양육에 들어가는 비용 등 자녀를 갖는데 대한 경제적 가치를 따진다고 보고, 자녀의 경제적 효용과 비용이라는 경제적 동기는 경제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산규범도 변화하는 것이라고 본다(Leibenstein, 1974).

개인의 출산행위를 경제행위와 관련하여 설명하는 자녀의 경제적 효용이론의 대표적 학자인 Leibenstein은 부부가 바람직한 자녀수를 결정함에 있어 추가적인 자녀로부터 얻어지는 효용과 비효용을 균형화 시킬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출산행동을 하는 부부가 경제학의 기본 인간형인 합리적인 경제인이라고 보았다. 특히 Leibenstein은 자녀의 효용 및 비용측면은 경제발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고 이것을 소득효과(income effect), 생존효과(survival effect), 직업분산효과(occupational distribution effect)로 설명하고 있다(이소영, 2007). 즉 소득효과와 관련하여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증대는 자녀양육에 대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증가하게 하며, 자녀의 역할에 대한 노동비용인 생산재효용과 노후보장효용은 감소하게 하므로 결국은 자녀양육비용의 증가에 비해 자녀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은 감소하게 되어 소자녀관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자녀양육을 위해서는 당연히 양육비용이 필요하다는 전제 속에 자녀의 경제적 효용성이 맞벌이 아내의 후속 출산과정에 영향을 준다는 관점은 국내·외적으로 꾸준히 연구되어 왔다. Becker(1965)는 그의 출산율 효용함수(quality-quantity model)에서, 소득이 높은 선진국들의 저출산 현상에 대해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의 수를 증가시키기보다는 자녀의 인적 자본 즉 교육수준을 높이기를 더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파악했다. Freedman과 Coombs(1966) 역시 자녀에게 사교육이나 클럽활동을 시키기를 고려하는 부모일수록,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기를 바라는 부모일수록, 자녀를 적게 낳기를 원한다는 조사결과를 보여주면서 자녀양육비용이 많이 들수록 출산을 감소시키려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관점으로 Lazear와 Michael(1988)는 자녀 양육비는 자녀양육을 위한 유무형의 비용으로 음식물이나

의료, 교육비 등 자녀에게 지출하는 직접적인 화폐의 양과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시간이나 정신적, 육체적 노동과 같은 간접적인 지출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자녀 양육비용의 증가가 출산수준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전통적인 농업중심사회에서는 자녀에 대한 효용이 비용보다 높기 때문에 다자녀 형성의 동기가 되지만 근대사회로 전환함에 따라 효용은 감소되는 반면, 비용은 증가하게 되어 소자녀관의 동기가 이룩된다는 입장에 대한 연구가 국내에서도 진행되어 왔다(김한곤, 1993; 윤희은, 1996; 박숙자, 2003). 특히 이러한 현상은 우리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는데, 적은 자녀수를 갖게 되면서 자녀양육의 고급화현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김승권 외, 2004; 장혜경, 2004; 차경옥, 2005). 따라서 출산력과 가계·경제요인에 대한 여러 연구들이 저마다 다른 연구 설계와 다양한 척도를 가지고 연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아질수록 소득이 높은 계층은 자녀를 적게 낳고 질적 투자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오히려 출산력이 낮아진다는 결과를 많은 연구에서 일관성 있게 보여 주고 있다(장영식, 1995; 서한샘, 1998; 전광희, 2002; 손승영, 2005).

3) 양성평등이론

최근 많은 연구자들이 저출산 현상을 설명하는데 가족에서의 성 형평성(gender equity)역할에 주목하게 되었다(박수미, 2005a). 특히 서구의 저출산 국가들 간 비교연구에서 노동시장 참가율이 높은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이 나타나거나 출산율의 회복세가 보이는 반면,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가 낮고 가족주의 전통이 강한 남부유럽 국가들에서 출산율이 더 낮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가 저출산의 원인이라는 기존의 연구경향에 반박되는 것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와 출산율간의 관계에 대한 재검증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에 관해 McDonald(2000)는 출산율감소이론에서 인구대체수준의 출산율에서 저출산으로의 하락은 개인 지향적 제도에서의 높은 성평등 수준과 가족제도 또는 가족지향제도에서의 낮은 성평등 수준 간의 부조화 때문이라고 주장하였고, 가족사회학자인 Hochschild(1989)는 미국의 맞벌이부부에 관한 연구에서 자녀가 있는 여성이 임금노동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에 반하여, 가정에서는 그에 따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 ‘지연된 혁명(the stalled revolution)’이 출산율 차이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Torr & Short, 2004). 특

히 McDonald(2000)와 Hochschild(1989)는 개인 지향적 제도와 가족 지향적 제도간의 성평등 수준의 불일치로 인한 ‘과도한 부담을 지는 취업모’에 초점을 맞추고, 저출산 현상을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의 역할 갈등의 문제로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족주의적 성격이 강한 사회에서 출산과 양육은 국가도 시장도 아닌 가족이 책임져야 하는 영역이고, 가족 구성원 중에서 시장노동을 하지 않는다고 전제된 여성에게 그 책임이 부과된다. 따라서 여성의 돌봄 노동에 대해 당연시하고 가치를 두지 않는 사회의 경우 여성의 출산과 양육을 시장 노동에 비해 저평가하여, 여성이 시장노동보다는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김혜경, 2004). UN이 주관하여 전세계를 대상으로 지표화하고 있는 여성개발지수(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GDI)와 여성권한척도(gender empowerment measure: GEM)을 통해서 나타난 2003년 한국사회의 아내개발지수에서 한국 여성들의 능력은 선진국 수준으로 개발되어 있는 반면, 이 능력이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참여와 같은 실질적인 권한 증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박수미, 2005b).

일반적으로 양성평등의 관점에서는 사회의 친가족적 성향과 체제의 차이에 따라 여성의 자율성(autonomy)과 형평성(equity)이 달라지고, 여성의 자율성과 형평성이 높아질수록 일-가족의 양립가능성이 높아지며 이것이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으며(Chesnais, 1996; Sainsbury, 1996; Hantrais, 1997; McDonald, 2000; 김수영, 2002; Olah, 2003). 취업여성에게 일-가정의 양립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사회적·가족적 불평등 상황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Kinzler(2002)는 가족내 아내와 남편의 성별분업과 가사육아부담이 평등하게 이루어지는 국가일수록 출산력이 높게 나타남을 밝혔으며, McDonald(2000)는 높은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에서 나타나는 저출산 현상은 개인적 제도의 높은 성평등과 가구/가족제도의 불평등간의 갈등 또는 불일치의 결과임을 지적했다. 게다가 성평등 수준이 중간인 국가에서 극저출산 현상을 보인다고 지적한 학자들도 있는데(Chenais, 1996; McDonald, 2000). 이들의 견해에 따르면 성평등 수준이 매우 높은 국가들이 출산율이 높으며, 성평등 수준이 매우 낮은 국가들 또한 출산율이 높지만, 성평등 수준이 중간인 경우 출산율이 낮게 나타나는 U자형 관계를 보인다는 것이다. Kinzler(2002)의 연구결과에서도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가족 내 아내와 남편의 성별분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사, 육아 부담이 평등하게 이루어지는 국가일수록 출산력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사회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보육서비스의 저출산에 대한 역할 측면에서 김자희

(2006)는 조직의 제도적 특성이 취업여성의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중 아동보육 관련 요인이 출산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이소영(2007)은 기혼여성의 자녀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 및 출산장려정책에 관한 연구에서 자녀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육아조력자의 유무가 영향력있는 변수라고 밝혔으며, 이정원(2007)도 합리적 가치적 선택모형을 중심으로 유자녀 취업여성의 후속출산의도에 관한 연구에서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육시설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향상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고 보장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맞벌이부부의 경우 부부간의 가사 및 육아 분담은 결혼만족도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 많은 연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어 맞벌이 부부의 가사 및 육아 분담이 공평할수록 취업여성의 역할과정, 역할갈등, 시간갈등에 따른 스트레스를 줄여주어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수월하게 하며, 전반적인 결혼생활의 안정에 영향을 줌으로써 자녀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김경신, 1996; 조희금, 1999; 강학중·유계숙, 2005).

2. 자녀가치관 관련 이론

1) 탈물질적 가치이론

자녀 가치관의 다양한 개념접근 속에 Ronald Inglehart(1997)는 예전의 물질적 가치관이 사회변화와 더불어 삶의 질을 중시하는 가치관으로 이행하는 현상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 과정을 조용한 혁명이라고 불렀는데 바로 물질적 소비와 안전에 대한 압도적인 강조로부터 생활의 질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의 이행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았다. 그에 의하면, 근대화 단계의 사회에서는 삶의 가치차원이 실존적인 측면에서의 신체·사회질서·안정과 경제성장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지만, 탈근대화 사회에서는 전반적으로 주관적인 행복감과 자아실현을 삶의 목표로 설정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근대화에서 산업화에 이르는 가치관인 물질적 가치관을 탈근대화에서 탈산업화로 이르는 가치관인 탈물질적 가치관의 강조로 치환시켜, 현대 사회는 근대적 가치인 경제발전과 안보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보다 탈물질적 가치인 자기표현, 성 역할의 변화, 환경, Well-Being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Inglehart는 World Value Survey에 담긴 한국의 사례를 보고

놀라워했는데, 탈물질적 가치의 변화를 서구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다른 나라와 비교가 되고 않을 정도로 가장 높게 드러나고 있음에 한국 사회가 전통적 가치전환 및 사회적 합의가 급진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보았다.

한국에서도 Inglehart의 명제에 따른 연구가 어수영(1997)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가족가치의 변화가 물질적 가치관에서 탈물질적 가치관으로 변화를 반영하는지는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은기수(1997)는 인구학자들이 유럽의 제2의 인구 변천을 설명하면서 성장과 안보를 중시하던 물질주의적 가치관이 자율성, 자기실현을 중시하는 탈물질적 가치관으로 변하면서 만혼과 동거, 이혼, 혼외출산이 증가하였다고 보고 이러한 가치관의 변동이 가족제도 및 가족제도내에서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인구대체수준이하의 저출산 현상을 초래한다고 보았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도 가임연령대 남녀의 미혼율 증가, 만혼화, 초산 연령의 증가 현상의 원인이 젊은 세대의 탈물질적 가치관의 경향이 증대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김승권 외, 2005:101-1-2; 이삼식 외, 2005). 물론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가 직접적으로 저출산으로 연결되는 것인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탈물질적 가치관에 대한 다양하고 미시적인 실증연구는 가치관의 다양한 변화라는 현재의 상황과 더불어 향후 더욱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 선호이론

자녀 가치관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개념적 변화에 있어서 선호이론은 시장노동과 가사노동간의 여성의 선택을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대표적 연구자인 Hakim(2003b)은 어떤 사항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로 그 사람의 행동을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공중도덕에 대한 태도(public morality)와 개인의 선호(preference)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공중도덕에 대해 개인이 보이는 태도는 개인의 선호 및 목표와 연관성이 낮게 나타나기 때문에 개인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태도'가 아닌 그 개인이 어떠한 선호를 보이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출산에 대해 여성에게 통제권이 주어지지 않고 노동시장에 참여할 기회가 제약되었던 사회에서는 시장노동과 가사노동에 대한 여성의 선호와 이를 반영할 선택권이 없었지만, 피임을 통해 여성 스스로 출산을 통제할 수 있게 되고 노동시장에서의 평등한 기회가 부여되게 된 사회에서는 여성의 선호가 그들의 선택행위에 반영될 수 있어 '진정한 선택'이 가능하

게 되었다고 보았다. 그는 시장노동과 가사노동에 대한 여성의 선호유형을 가정과 노동에 대한 지향에 따라 여성 노동자들을 가정지향적(home-centered) · 적응적(adaptive) · 노동지향적(work-centered) 집단의 세 가지로 분류했다. 여기서 여성 자체의 이질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여성의 선택이 외부적인 사건이나 여성을 둘러싼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적응적 집단에만 초점을 맞추고 가정 지향적이나 노동 지향적 아내의 존재를 간과하고 모든 여성을 동질적으로 여겨왔음을 비판했다(Hakim, 2003a). 따라서 아내의 외부적인 조건, 계층적인 조건보다 아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활양식에 대한 선호가 어떤 여성의 행동을 설명하는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모든 교육수준과 사회계층에서 발견되고 있다(Shaw & Shapiro, 1987:9). 따라서 모든 경제주체들이 자신의 물질적 이득을 위해서만 행동하지는 않는다는 것, 즉, 경제주체들의 선호에는 비물질적인 요인에 의해 동기 부여되는 내재적(intrinsic)인 부분이 존재한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외부적인 개입이 없더라도 내재적인 선호에 기초하여 규범을 형성함으로써 서로간의 행동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므로 자녀에 대한 내재적 선호에 따라 출산결정에 강력하게 영향을 줄 수 있게 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맞벌이 아내와 남편의 둘째 자녀 출산의도와 출산기피 요인 탐색을 위한 본 조사대상은 <표 1>과 같다.

<표 1> 본 조사대상의 특성

유형		수	특성
설문 집단	맞벌이 아내	1200명	- 자녀가 보육시설에 재원중인 한 자녀 맞벌이 가정 아내와 남편 - 한 자녀 이상이 보육시설에 재원중인 두 자녀 맞벌이 가정의 아내와 남편
	맞벌이 남편	600명	
초점면접 집단	맞벌이 아내	40명	- 자녀가 보육시설에 재원중인 한 자녀 맞벌이 가정 아내와 남편
	맞벌이 남편	40명	
타당도 분석 집단	맞벌이부부	400가구	- 자녀가 보육시설에 재원중인 한 자녀 맞벌이 가정 아내와 남편

조사지역은 맞벌이부부의 밀집도가 높은 서울 및 경기, 인천지역에 한정하여 유의할당 추출법으로 50개의 보육시설을 임의로 선정하여 시설장에게 전화로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한 자녀와 두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에만 설문지를 배포·회수하도록 의뢰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출산관련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예비조사를 통한 신뢰도검사 과정을 거쳐 연구자가 연구목적에 맞게 직접 작성하였다.

<표 2> 설문내용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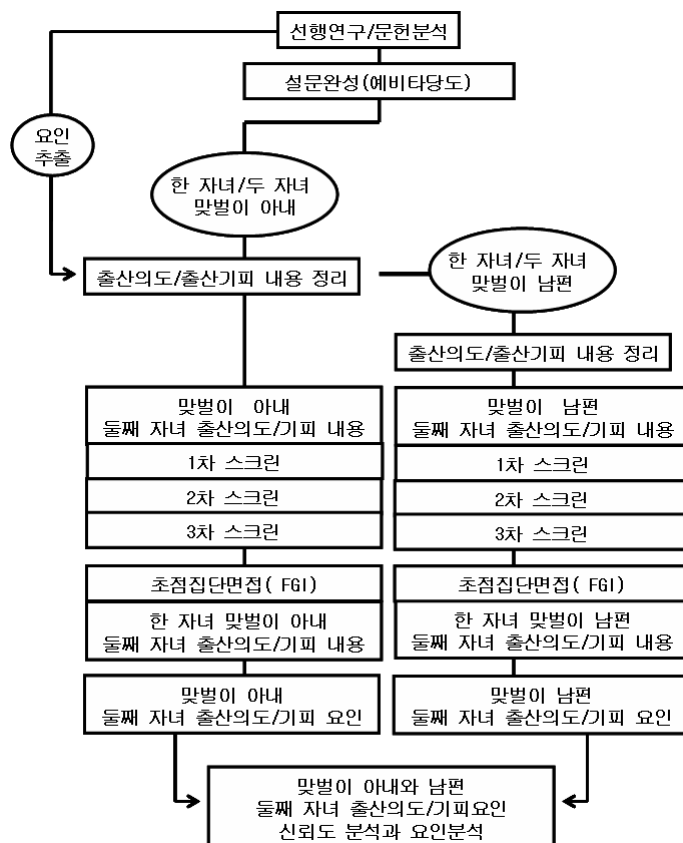
	한 자녀	두 자녀
일반적 배경 (9)	부부의 연령 부부의 학력 결혼기간 혼인상태 직계가족 동거 유형 부부의 형제(자매)순위 주거지 주거형태 종교	부부의 연령 부부의 학력 결혼기간 혼인상태 직계가족 동거 유형 부부의 형제(자매)순위 주거지 주거형태 종교

경제적 배경 (3)	부부 직업 월평균소득 아내 수입 기여도	부부 직업 월평균소득 아내 수입 기여도
출산상태와 계획 (4)	출산연령 자녀 성별 향후 출산계획 여부 ↳출산의도/출산기피 이유	첫째 자녀 출산연령 첫째 자녀 성별 둘째 자녀 출산 이전 출산계획 여부 ↳출산의도/출산기피 이유 ※두 자녀 가정(회고성 질문)
자녀양육 배경 (4)	자녀 양육형태 월 평균 양육비 남편의 자녀양육 협력도 남편의 가사업무 협력도	첫째 자녀 양육형태 월 평균 양육비 남편의 첫째 자녀 양육 협력도 남편의 가사업무 협력도
사적 견해 (1)	현재 지원정책에 대한 사적 견해	현재 지원정책에 대한 사적 견해
계	21	

()는 문항수

3. 연구절차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위한 연구절차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절차

1) 맞벌이 아내의 둘째 자녀 출산의도와 출산기피 설문 분석

본 조사 대상인 맞벌이 아내 120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기재가 미비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한 자녀 맞벌이 아내의 둘째 자녀 출산의도집단 215부와 둘째 자녀 출산기피집단 205부, 두 자녀 맞벌이 아내의 둘째 자녀 출산의도집단 225부와 둘째 자녀 출산기피집단 209부를 사례별로 사례수와 함께 정리하였다.

2) 맞벌이 아내와 남편의 둘째 자녀 출산의도와 출산기피 요인 선정

맞벌이 아내와 남편의 둘째 자녀 출산의도와 출산기피 요인별 분석을 위해 정리된 내용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출산의도요인을 인구학적 요인, 자녀양육지원 요인, 개인적 자녀가치관요인, 정서적 자녀 가치관 요인, 사회적 자녀 가치관 요인의 총 5개 요인으로 분석하였고, 출산기피요인 역시 인구학적 요인, 자녀양육지원요인, 가계·경제 요인, 개인적 자녀 가치관 요인, 직장문화 요인의 총 5개 요인으로 분석하였다.

3) 맞벌이 남편의 둘째 자녀 출산의도와 출산기피 설문 분석

본 조사 대상인 맞벌이 남편 600명에게 맞벌이 아내와 동일한 배경 설문과 맞벌이 아내의 설문내용을 요인별로 정리한 것에 추가적인 견해를 밝히도록 구성한 설문지를 배부하여 한 자녀 맞벌이 남편의 둘째 자녀 출산의도집단 94부와 둘째 자녀 출산기피집단 118부, 두 자녀 맞벌이 남편의 둘째 자녀 출산의도집단 98부와 둘째 자녀 출산기피집단 97부를 맞벌이 아내와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 정리하였다.

4) 맞벌이 아내와 남편의 둘째 자녀 출산의도와 출산기피 요인 전문가 분석

분석·정리된 맞벌이 아내와 남편의 둘째 자녀 출산의도와 기피에 대한 보다 중립적이고 보편적인 관점을 위해 델파이 기법을 사용했다. 이에 출산과 양육, 부모역할에 대한 관련 이론과 전문적 지식, 양육의 변화된 실태 등에 대한 인식이 풍부한 전문가집단을 선정하였다.

<표 3> 전문가의 일반적 특성

직 위	성별		연령			보육관련 경력			학력			
	남	여	30대~	40대~	50대~	5년~	10년~	15년~	박사	박사 수료	박사 재학	석사
교수	-	2	-	2	-	-	1	1	2	-	-	-
겸임교수	-	3	1	2	-	-	2	1	1	2	-	-
보육관련 강사	-	2	1	1	-	2	-	-	-	1	1	-
보육정보센터장	1	8	1	7	1	2	4	3	4	1	4	-
보육시설 시설장	1	13	5	6	3	6	5	3	2	3	4	5
계	2	28	8	18	4	10	12	8	9	7	9	5
	30		30			30			30			

전문가 의견을 받기 위해 맞벌이부부의 출산의도와 기피요인을 한 자녀와 두 자녀로 구분하여 남편용과 아내용 전문가 의견조사 1차 설문지를 작성한 후, 삭제 항목 및 수정 또는 첨가 할 내용 기입을 요청하였다. 따라서 전문가 의견을 참조하여 지나치게 개인적인 내용으로 인식되거나 내용범위가 너무 크고 개념정립이 모호한 항목을 삭제하였다.

2차 스크린을 통해 동일한 내용은 통일하고 기타 내용의 요점 수정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참조하여 분석한 후, 아내용(출산의도 18항목, 출산기피 20항목)과 남편용(출산의도 18항목, 출산기피 18항목)으로 각 항목별 타당도와 중요도를 6점 척도로 체크하는 3차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델파이기법을 활용한 설문의 중단시점을 의미하는 안정도 분석을 변이계수를 이용하여 확인한 결과 아내와 남편 모두 변이계수를 통한 모든 각 항목의 값이 0과 0.5이하에서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 출산의도 및 출산기피 항목이 둘째 자녀 출산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변인으로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5) 맞벌이 아내와 남편의 둘째 자녀 출산의도와 출산기피 요인 초점집단면접

초점집단 총 80명을 통해 사례 분석을 한 결과 맞벌이 아내는 둘째 자녀 출산의도가 18명, 출산기피는 22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맞벌이 남편은 둘째 자녀 출산의도가 19명, 출산기피는 21명으로 나타났다. 면담은 주로 주중 점심시간이나 저녁 이후, 토요일에 이루어졌으며 개별 면담시간은 평균 30분 정도 이루어졌다.

6) 맞벌이 아내와 남편의 둘째 자녀 출산의도와 출산기피 요인분석

타당도 분석집단인 맞벌이부부 400가구에 설문지를 배부하여 출산의도집단 154부와 출산기피집단 136부가 회수되었다. 그 중 기재가 미비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출산의도집단 148부와 출산기피집단 132부로 신뢰도 분석과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4.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및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맞벌이 아내와 남편의 출산의도와 출산기피 내용을 관련 전문가 30명에게 계속 피드백 받는 델파이 방법을 3차 실시하여 맞벌이 아내와 남편의 둘째 자녀 출산의도와 출산기피를 요인별로 분석하였다.

셋째, 델파이 조사 설문지의 안정도 파악을 위해 평균 및 표준편차, 변이계수를 산출하였다.

넷째, 초점면접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및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다섯째, 분석된 출산의도와 출산기피 요인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 SPSS 11.0을 사용하여 크론바하 알파계수(Cronbach's alpha)를 산출하고 주성분분석에 의한 직각회전방법(varimax method)을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맞벌이부부의 둘째 자녀 출산의도 요인

1) 맞벌이 아내의 둘째 자녀 출산의도 요인

맞벌이 아내와 초점집단 맞벌이 아내의 둘째 자녀 출산의도 요인 결과는 <표 4>와 같으며, 이것을 요인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표 4> 맞벌이 아내와 초점집단 맞벌이 아내의 둘째 자녀 출산의도 특성

요인	맞벌이 아내	초점집단 맞벌이 아내
인구학적	1. 부부(엄마) 연령상 조기 출산 원해서 2. 터울 간격 줄여 조기 양육 원해서 3. 터울 간격이 있어 양육 여유가 생겨서	1. 늦게 결혼해서 조기 출산 원해서 2. 부부 연령상 조기 출산 원해서 3. 터울간격 줄여 빨리 키우고 싶어서 4. 중요 육아시기가 지나서 둘째 자녀 양육이 가능할 것 같아서
자녀 양육 지원	1. 조부모(친지) 양육지원 가능해서 2. 남편과 양육 공동분담 가능해서 3. 육아휴직 사용하여 양육하면 되니까 4. 출산휴가 사용하면 되니까	1. 부모님이 둘째 양육지원 가능해서 2. 부모님이 영아기까지 양육지원 동의하셔서 3. 함께 노력하면 육아분담 협조가 가능해서 4.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되니까
개인적 자녀 가치관	1. 원래 자녀계획이 두 명이어서 2. 자녀양육은 즐겁고 행복해서 3. 경제 상황 어려워도 두 자녀 양육 노력하면 가능할 것 같아서 4. 종교적 이유로	1. 원래부터 두 자녀를 계획하고 있어서 2. 자녀를 키우는 것이 정말 좋아서 3. 경제상황에 맞추어 두 자녀 양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서적 자녀 가치관	1. 첫째아의 정서부족을 보충할 것 같아서 2. 서로 의지하고 보완해 줄 수 있어서 3. 혼자서 외로우니까 4. 아이를 키우면서 둘째 필요성 느껴서	1. 혼자라서 형제·자매아보다 사회성이 부족한 것 같아서 2. 둘이 커서 서로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어서 3. 형제자매가 생기면 아이에게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서 4. 아이가 나중에 커서 너무 외로울 것 같아서 5. 아이를 키우면서 둘째의 필요성이 느껴져서
사회적 자녀 가치관	1. 남편이 장남이라 아들 원해서 2. 남편이 독자라 아들 원해서 3. 시부모님의 권유로	1. 남편이 장남이라서 시부모님이 원하셔서 2. 남편이 아들을 낳고 싶어 해서
계	18	18

(1) 인구학적 요인

그동안 대부분의 연구에서 초혼연령의 상승이 우리나라 저출산 증가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밝혔으나, 맞벌이 아내의 초혼연령이 높을수록 출산의도도 증가하는 결과도 나타났듯이(김자희, 2006). 본 연구에서도 높은 연령이 출산의도로 작용할 수 있음이 나타났다. 또한 터울

간격을 줄여 함께 조기 양육을 원하는 경우나 터울 차가 있어 안정적 양육을 지향하는 것에서 물질적 소비와 안전에 대한 압도적인 강조로부터 생활의 질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의 이행을 지적한 Ronald Inglehart(1997)의 탈물질적 가치관을 엿볼 수 있었다. 따라서 출산의도의 인구학적 특성에서 나타난 결과는 우리사회가 이제 기성세대의 물질적 가치관에서 벗어나 개인이 주체가 된 탈물질적 가치관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2) 자녀양육지원 요인

많은 선행연구에서 대체양육지원의 가능성과 부부의 역할 분담 가능성이 출산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혀왔다(Lehrer E., 1985; Castles F. G. 2003; Del Boca, D., 2002; 서지원 · 이기영, 1997; 성지미 · 차은영, 2000; 한유미, 2004; 윤소영, 2005; 김자희, 2006; 이정원, 2007). 특히 Olah(2003)는 스웨덴의 둘째 자녀 출산의 중요한 요인으로 남편의 육아참여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성역할 구조’를 지적했다. 아울러 선호하는 대체양육방법을 이용했을 때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이(이정원, 2007)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도 조사 대상자의 대체양육방법의 다양성이 출산의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개인적 자녀 가치관 요인

자신의 자녀계획을 실천하려는 개인적 의지가 출산의도로 나타났으며, 자녀양육에 대한 긍정성 역시 개인적 자녀양육관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경제적 상황에 대한 어려움이 출산기피집단에게는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로 나타났지만 출산의도에서는 경제상황이 어려워도 두 자녀 양육이 노력하면 가능하다는 개인적 자녀가치관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상대적 개념의 적용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동안 소득이 높은 계층은 자녀를 적게 낳고 질적 투자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오히려 출산력이 낮아진다는 결과(장영식, 1995; 서한샘, 1998; 전광희, 2002; 손승영, 2005)도 있고, 양육비 및 교육비에 대한 부담 증가가 출산율 감소로 나타난다는 결과(김한곤, 1993; 윤희은, 1996; 박숙자, 2003; 김승권 외, 2004; 장혜경, 2004; 차경옥, 2005)도 있었다. 그러므로 출산에 대한 개인적 자녀가치관의 정도에 따라 경제적 상황은 출산기피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출산의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인다.

(4) 정서적 자녀 가치관 요인

최근의 출산관련 연구에서 출산의지에 유의미하다고 밝혀지는 요인이 바로 자녀 가치관에 대한 중요성이다(박현주, 2006; 김자희, 2006; 이정원, 2007). 그러나 이들의 연구에서 자녀 가치관에 관한 설문은 자녀양육에 대한 일반적 관점이 대부분으로 자녀 자체에 초점을 둔 부모의 관점을 제시한 문항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 자체에 초점을 둔 부모의 정서적 자녀가치관이 나타났는데 실제로 조사대상자의 출산의도에서 매우 많은 사례 수를 보이고 있었다.

(5) 사회적 자녀 가치관 요인

아들선호에 대한 전통적 자녀가치관이 여전히 시댁이나 남편에 의해 출산의도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면서 우리 사회의 가치관 이행의 과도적 과정을 엿볼 수 있었다. 실제로 아내의 경우 출산의도에 있어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남편과 시댁의 요구 정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면이 보였다. 그러므로 천혜정(2005)이 자녀출산에 대한 부부간의 의견 차이의 심각성이 자녀출산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고 밝히면서 남편만 자녀를 원하는 경우 아내만 자녀를 원하는 경우보다 심각성 수준이 높다고 제시했듯이 이러한 차이점은 부부의 긍정적인 합의에 의한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인다.

2) 맞벌이 남편의 둘째 자녀 출산의도 요인

맞벌이 남편과 초점집단 맞벌이 남편의 둘째 자녀 출산의도 요인 결과는 <표 5>와 같으며, 이것을 요인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표 5> 맞벌이 남편과 초점집단 맞벌이 남편의 둘째 자녀 출산의도 특성

요인	맞벌이 남편	초점집단 맞벌이 남편
인구학적	1. 부부(엄마) 연령상 조기 출산 원해서 2. 터울 간격 줄여 조기 양육 원해서 3. 터울 간격이 있어 양육 여유가 생겨서	1. 부인 연령상 기형아 등 난산 우려 때문에 2. 부부 연령상 조기 출산 원해서 3. 터울간격 줄여 빨리 키우고 싶어서 4. 중요 육아시기가 지나서 둘째 자녀 양육이 가능할 것 같아서
자녀 양육 지원	1. 조부모(친지) 양육지원 가능해서 2. 아내와 양육 공동분담 가능해서 3. 아내가 육아휴직 사용하면 되니까	1. 부모님이 둘째 양육지원 가능해서 2. 부모님이 영아기까지 양육지원 동의해서 3. 함께 노력하면 육아분담 협조가 가능해서 4. 육아휴직해서 양육하면 되니까
개인적 자녀 가치관	1. 원래 자녀계획이 두 명이어서 2. 자녀양육은 즐겁고 행복해서 3. 경제 상황 어려워도 두 자녀 양육 노력하면 가능할 것 같아서 4. 종교적 이유로	1. 원래부터 두 자녀를 계획하고 있어서 2. 자녀를 키우는 것이 정말 좋아서 3. 경제상황에 맞추어 두 자녀 양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서적 자녀 가치관	1. 첫째아의 정서부족을 보충할 것 같아서 2. 서로 의지하고 보완해 줄 수 있어서 3. 혼자서는 외로우니까 4. 아이를 키우면서 둘째 필요성 느껴서	1. 혼자라서 형제·자매아보다 사회성이 부족한 것 같아서 2. 둘이 커서 서로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어서 3. 형제자매가 생기면 아이에게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서 4. 아이가 나중에 커서 너무 외로울 것 같아서 5. 아이를 키우면서 둘째의 필요성이 느껴져서
사회적 자녀 가치관	1. 장남이라서 아들 원해서 2. 독자라서 아들 원해서 3. 부모님의 권유로 4. 아들을 낳고 싶어서	1. 장남이라 부모님이 원해서 2. 집안의 대를 잇고 싶어서 3. 아들을 낳고 싶어서
계	18	19

(1) 인구학적 요인

부부가 함께 자녀 출산을 계획하고 출산하여 양육을 함께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고와 생활 양식이 비슷하게 되어진다고 볼 때, 출산의도에 대한 인구학적 특성도 동일한 인식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남편 역시 자녀 출산을 의도하는 경우 연령과 터울에 대한 개인적 인식과 선호에 따라 출산기피와 출산의도의 양면적 상황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인다.

(2) 자녀양육지원 요인

출산의도집단의 경우 대리양육, 부부의 공동양육,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면 출산을 의도하겠다는 긍정적 인식 속에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이 작용하면서 출산의도로 연결되어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출산의도집단의 맞벌이 남편의 경우 부부간의 역할분담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으며 육아와 가사의 역할분담에 대해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 함께 협력하여 실천한다는 개방적 가치관을 갖고 있었다.

(3) 개인적 자녀 가치관 요인

경제적 어려움이 저출산을 가져올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장혜경, 2004; 김정미, 2004; 최현수, 2005)와 달리 자녀 출산의지가 강할수록 경제적 상황은 출산의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즉, 자녀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한 경우 경제에 대한 개인적 인식은 절대적 빈곤이 아닌 상대적 빈곤의 경우 출산의도에 부정적 영향요인은 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이러한 개인의 내생적 선호를 객관적인 잣대로 공통적으로 적용하여 왔는데 오히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경제에 대한 개인의 상대적 입장을 의식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4) 정서적 자녀 가치관 요인

출산의도 남편의 경우도 아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둘째 자녀의 정서적 자녀 가치관에 많은 사례수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부부가 자녀양육과정에서 느끼는 공감대 형성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맞벌이부부의 경우 출산을 의도하는데 있어서 자녀양육을 통해 나타나는 정서적 자녀가치관에 매우 영향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부모의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관은 지속적으로 맞벌이부부의 둘째 자녀출산의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인다.

(5) 사회적 자녀 가치관 요인

아내의 경우와 뚜렷하게 차이가 난 것은 여전히 남아선호사상의 가치관이 존재한다는 점

으로 아내에 비해 가계계승이나 핏줄의 소중함에 대해 강력한 인식을 보이고 있다고 여겨진다. 저출산의 요인분석과 사회복지적 함의 연구에서 이인숙(2005)은 남아선호와 출산의도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또한 한 자녀 가정의 자녀출산계획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구에서 정혜옥(2006)이 남편의 경우 첫째 자녀의 성별이 자녀의 출산계획 여부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밝혔듯이 본 연구에서도 남아선호사상에 대한 가치관이 남편에게 자리 잡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것은 현재 사회진출증가에 따른 아내의 양성평등의식보다 남편의 양성평등의식이 좀 더 느리게 진행되어지고 있음을 반영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둘째 자녀의 출산의도요인에서 남편과 아내의 성선호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3. 맞벌이부부의 둘째 자녀 출산기피 요인

1) 맞벌이 아내의 둘째 자녀 출산기피 요인

맞벌이 아내와 초점집단 맞벌이 아내의 둘째 자녀 출산기피 요인 결과는 <표 6>과 같으며, 이것을 요인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표 6> 맞벌이 아내와 초점집단 맞벌이 아내의 둘째 자녀 출산기피 특성

요인	맞벌이 아내	초점집단 맞벌이 아내
인구학적	1. 부모 연령이 높아서 2. 만혼으로 인한 부모 연령 때문에 3. 아이와 터울 간격이 높아서	1. 장기적으로 볼 때 부모 나이가 우려되어서 2. 첫째와 터울차이가 너무 나는 것 같아서
자녀 양육 지원	1. 양육자 부재 2. 좋은 양육자(기관) 선택 어려움 3. 두 자녀 조부모 양육지원 부담 4. 첫째 양육스트레스 5. 일/육아 병행 부담 6. 일/육아 병행 시간 부족 7. 두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역할 부족	1. 양육자(시설) 구하는 것이 힘들어서 2. 부모님의 양육지원 곤란 3. 아이 양육과정이 너무 많이 힘들어서 4. 일과 육아 병행의 어려움과 시간부족 5. 한 자녀도 제대로 못 키우는 것 같아서
가계·경제	1.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2. 경제적으로 두 자녀 양육비/교육비 부담 3. 수입은 일정한데 두 자녀 양육비/교육비 부담	1. 경제적으로 두 아이까지는 제대로 키우기 힘들어서 2. 두 자녀 양육비 너무 부담스러워서

개인적 자녀 가치 관	1. 두 자녀 양육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 부담 2. 알맞은 가족계획이라고 생각 3. 경제적으로 편안한 노후 원해서	1. 현재 상황이 자녀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 싫어서 2. 원래 가족계획이 1명이어서 3. 노후의 안정을 생각하니 한 자녀가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직장 문화	1. 임신으로 인한 직장 사퇴의 우려 2. 직장생활의 원활함 우려 3. 직장생활이 출산보다 우선 4. 육아휴직의 사용 접근성 곤란	1. 임신으로 인한 직장생활 어려움 2. 직장사퇴의 우려 3. 직장에서 내 위치를 다지고 싶어서 4.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분위기가 안돼서
계	20	16

(1) 인구학적 요인

출산과 관련한 기존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연령이 저출산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은 지속적으로 밝혀져 왔다(권태환·김두섭, 1998; 변준한, 2002; 박병일, 2004; 김자희, 2006; 박현주, 2006). 본 연구에서도 맞벌이 아내의 경우 연령과 출산기피의 정적관계가 나타났으며,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혼화의 경향이 실제로 둘째 자녀의 출산기피에 영향을 줄 수 있음도 나타났다. 터울의 경우도 맞벌이 아내의 경우 육아에 대한 부모역할이 많이 요구되는 영유아기의 후반기로 갈수록 현재의 안정적인 분위기를 유지시키려는 욕구와 갈등이 높아지면서 출산기피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이 나타났다. 따라서 한 자녀 맞벌이 아내의 인구학적 특성에서 나타난 출산기피의 원인은 사회 전반적으로 진행되는 초혼연령의 상승과 그에 따른 후속 자녀 출산에 대한 연령부담, 터울 차에 의한 양육의 지속적 제공에 대한 부담이 복합되어져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2) 자녀양육지원 요인

대체양육지원의 부족과 맞벌이 아내의 일과 육아 병행에 대한 부담이 저출산의 지속적인 영향요인이 된다는 것은 이미 선행연구를 통해 계속 제시되어 왔다(Richter et al, 1994; Brewster & Rindfuss, 1996; Berinde, 1999:355 ; Del Boca, 2002; Gustafsson, Kenjoh & Wetzels, 2002; 이용복, 2004; 윤소영, 2005; 박현주, 2006; 정혜옥, 2006; 김자희, 2006; 이소영,

2007; 이정원, 2007). 특히 본 연구에서는 대체양육지원 부족에는 양육자가 없기 때문에 출산 기피를 하려하고, 양육기관이 있어도 맘에 드는 기관이나 양육자 선정이 어렵고, 두 자녀에 대한 조부모의 양육지원이 어렵고 부담된다는 구체적인 기피이유를 밝힐 수 있었다. 또한 일과 육아의 병행이 부담되는 것에는 실제로 일과 육아의 순조로운 병행을 위한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이러한 과정 속에 양육 스트레스가 증가하며, 그 결과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 역할 부족을 인식함으로써 향후 둘째 자녀 양육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지는 맥락적 연계성을 밝힐 수 있다.

(3) 가계 · 경제 요인

자녀양육비용이 높아질수록 자녀에 대한 수요가 감소된다는 것은 자녀의 경제적 효용이론 입장에서 많이 밝혀져 왔다(Blau & Robins, 1989:294-295; Kimmel, 1998:287; Berinde, 1999:357; Esping-Andersson, 2000:303; Del Boca, 2002:565; 변준한, 2003; 김승권, 2004; 장혜경 외, 2004). 본 연구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두 자녀 양육이 부담스럽다는 상황적 이유가 함께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과 두 자녀에 대한 양육비용 및 교육비용의 부담은 매우 상대적 개념으로 자신의 기준에서 느끼는 부담에 의해 영향을 받는 부분이 매우 크다. 즉, 어떤 비용에 대한 객관적 수치상의 부담보다 그것을 부담으로 느끼는 심적 상태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기준에서 물질에 대한 효용적 인식의 많고 적음에 따라 비용부담의 느낌이 달라질 수 있음을 뜻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경제적 효용이론에 대한 개인의 상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4) 개인적 자녀 가치관 요인

그동안 출산관련 연구는 주로 연령, 성별, 학력, 소득수준 등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분석 변수로 사용해 왔으며 개인적 자녀가치관의 경우,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여부를 자녀효용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왔다(김한곤, 1993; 변준한, 2003; 김승권, 2004; 이삼식, 2005; 차경옥, 2005; 윤소영, 2005; 김자희, 2006; 정혜옥, 2006).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출산 당사자인 맞벌이 아내의 개인적 자녀가치관은 현대사회의 개인주의적 가치관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이 나타났다. 그들은 예전과 달리 더 이상

자녀 자체에 대한 의미 부여가 아니라 스스로의 입장에서 자녀의 가치를 포함시키고 있었다. 따라서 양육을 엄마만의 의무이자 책임으로 인식하지 않고 자신의 일과 생활, 계획 속에 포함시켜 의식하는 가치관이 자리잡고 있음이 보인다. 또한 자녀계획 자체를 1명으로 결정한 소자녀관의 실천에서 탈물질적 가치이론에서 지적된 자신이 추구하는 삶에 대한 개인주의적 자녀 가치관을 엿볼 수 있으며, 자녀에 대한 노후보장의 효용적 관점이 더 이상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음도 알 수 있다.

(5) 직장문화 요인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에 따르면, 직장에서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기혼 아내 98.10%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바로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가족친화적 직장문화의 필요성이 절실함이 나타났는데, 맞벌이 아내에게 자녀 출산 및 양육은 당연한 권리인 만큼 이러한 권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직장문화의 부족은 지속적으로 출산기피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문화를 인정하고 자신의 성공지향에 몰입하려는 의지가 출산보다 직장이 우선이라는 인식으로 나타났다고 보인다.

2) 맞벌이 남편의 둘째 자녀 출산기피 요인

맞벌이 남편과 초점집단 맞벌이 남편의 둘째 자녀 출산기피 요인 결과는 <표 7>과 같으며, 이것을 요인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표 7> 맞벌이 남편과 초점집단 맞벌이 남편의 둘째 자녀 출산기피 특성

요인	맞벌이 남편	초점집단 맞벌이 남편
인구학적	1. 부모 연령이 높아서 2. 만혼으로 인한 부모 연령 때문에 3. 아이와 터울 간격이 높아서	1. 장기적으로 볼 때 부모 나이가 우려되어서 2. 첫째와 터울차이가 너무 나는 것 같아서 3. 원하지만 임신이 안돼서
자녀양육	1. 양육자 부재 2. 좋은 양육자(기관) 선택 어려움	1. 양육자(시설) 구하는 것이 힘들어서 2. 부모님의 양육지원 곤란

지원	3. 두 자녀 조부모 양육지원 부담 4. 첫 아이 양육스트레스 5. 일/육아 병행 부담	3. 함께 아이를 돌본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4. 일을 하면서 육아지원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5. 아내를 도와서 육아를 공동 분담할 형편이 못돼서
가계 · 경제	1.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2. 경제적으로 두 자녀 양육비/교육비 부담 3. 수입은 일정한데 두 자녀 양육비/교육비 부담	1. 경제적으로 두 아이까지 제대로 키우기 힘들어서 2. 수입은 일정한데 두 자녀 양육비까지 너무 부담스러워서 3. 가장으로서 아직 경제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개인적 자녀 가치관	1. 두 자녀 양육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 부담 2. 알맞은 가족계획이라고 생각 3. 경제적으로 편한 노후 원해서 4.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1. 현재 상황이 자녀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 싫어서 2. 원래 가족계획이 1명이어서 3. 노후의 안정을 생각하니 한 자녀가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4. 미래를 생각하니 두 자녀를 책임있게 키울 자신이 없어서
직장 문화	1. 아내의 육아휴직 사용 원활하지 못해서 2. 아내가 계속 직장생활을 원해서 3. 아내가 직장 그만두는 것 싫어서	1. 아내의 직장이 임신·출산 문화에 관대하지 못해서 2. 아내 자신이 직장생활 하는 것을 원해서
계	18	17

(1) 인구학적 요인

출산행위 당사자인 남편 역시도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회적 만혼화의 경향은 현재처럼 남편과 아내의 능력 차이는 점차 평등화되고 있는 반면 남녀의 역할평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지금처럼 느리게 진행될 경우, 계속 증가할 것이 확실하다. 그러므로 인구학적 출산기피 요인은 자신이 추구하는 생활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개인주의적 성향과 더불어 맞벌이부부의 지속적인 출산기피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2) 자녀양육지원 요인

맞벌이 남편 역시 대체양육지원의 부족과 일과 육아의 병행 부담이 주된 출산기피 요인이

라고 볼 수 있는데, 일과 육아 병행부담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지극히 개인적 선호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남들에겐 쉬워도 나에게서는 어렵고, 남들에겐 적어보여도 나는 많이 했다고 여기는 개인적 선호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자녀양육의 과정에서 양육스트레스로 나타났다고 보인다. 특히 육아는 공동부담이라는 의식이 희박한 한국의 전통적 가치관 속에 육아에 대한 공동부담과 지원을 바라는 아내와의 견해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양육지원 부재와 일과 양육 병행 부담이라는 일반적 요인의 이면에는 남녀의 양육지원 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관과 현재의 양성 평등적 양육지원 역할에 대한 갈등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이 맞벌이부부의 둘째 자녀 출산기피 이유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 가계·경제 요인

전술한 바와 같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비용부담은 절대적인 개념과 상대적 개념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 극빈층, 법정생활보호 대상자 등 사회적으로 기본적인 의식주의 최저 한계선을 정한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와 빈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적용되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그동안 자녀양육비용과 경제성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결과는 부정결과와 정적 결과가 공존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자녀양육비용이 높아질수록 자녀에 대한 수요가 감소된다고 하지만(Esping-Andersson, 2000:303; Del Boca, 2002:565; 변준한, 2003; 김승권, 2004; 장혜경 외, 2004). 소득이 높은 계층은 오히려 자녀를 적게 낳고 질적 투자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도 나타나는 것이다(서한샘, 1998; 손승영, 2005; 차정옥, 2005).

따라서 경제가 어렵고 양육비용이 부담되어서 출산을 기피한다는 절대적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경제적 상황에 대한 상대적 관점과 개인적인 물질에 대한 상대적 가치관의 입장을 폭넓게 반영하여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4) 개인적 자녀 가치관 요인

전통적으로 가장의 역할을 해온 남편은 가족 부양에 대해 책임감을 강하게 인식해왔다. 현대사회로 오면서 이러한 전통적 가장의 역할 가치관이 희석되고 있지만 여전히 자녀가치관의

관점에서 가장으로서의 책임의식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출산기피 맞벌이 남편은 개인주의적 자녀가치관과 전통적 자녀가치관이 혼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5) 직장문화 요인

아내의 입장에서 밝혀진 내용과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로는 아내가 맞벌이 여성이고 임신과 출산, 양육을 함께 진행하면서 배우자의 직장 상황이 반영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내의 원활한 직장생활은 남편들에게도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음이 나타났다. 당연히 아내 직장의 육아휴직 활용의 접근성이 어려운 것도 남편의 출산기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육아휴직을 하면 기존 수입의 감소가 불가피하고 오히려 수입은 감소되었는데 가족이 늘어난다는 심리적, 물질적 어려움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내의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나타난 아내의 직장분위기와 문화를 함께 공유하면서 나타난 상황이 상당수 둘째 자녀 출산기피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4. 맞벌이부부의 둘째 자녀 출산의도와 출산기피 요인 분석

맞벌이 아내와 남편의 출산의도와 출산기피 요인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cronbach α 를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하여 고유값(eigen value)이 1 이상 되는 요인의 수를 파악하고, 요인적재량이 0.40 이상이 되면 유의한 항목으로 간주되므로 기준을 0.40으로 하였으며, 공유치(communality)가 0.30 이상인지를 확인하였다. 아울러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분석한 신뢰도계수는 0.60 이상이면 분석에 사용할 신뢰도가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0.60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1) 맞벌이부부의 둘째 자녀 출산의도 요인분석

(1) 맞벌이 아내의 둘째 자녀 출산의도 요인분석

맞벌이 아내의 출산의도 요인은 5개요인 18문항으로 요인적재량이 0.40이상이 되면 유의

한 항목으로 간주하므로 기준을 0.40으로 하였는데 개인적 자녀가치관 요인에서 ‘종교적인 이유로’의 문항은 요인적재량이 2.40으로 나타나 신뢰도 계수 및 요인분석의 타당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항의 중요성으로 볼 때, 종교적 이유로 출산을 의도하는 부분이 개인적 자녀 가치관 요인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보고 삭제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총 17문항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8> 맞벌이 아내의 출산의도 요인계수 행렬과 신뢰도 계수(N=148)

문항내용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공유치	α 계수
	정서적 자녀 가치관	개인적 자녀 가치관	자녀 양육 지원	사회적 자녀 가치관	인구 학적 특성		
혼자는 외로우니까 서로 의지하고 보완해 줄 수 있어서 첫째아의 정서부족을 보충할 것 같아서 아이를 키우면서 둘째 필요성 느껴서	.932 .926 .838 .806	.018 .060 -.042 .071	-.073 .019 .039 .398	.098 .049 -.022 -.047	-.101 -.103 -.146 -.206	.895 .875 .727 .856	.897
자녀양육은 즐겁고 행복해서 원래 자녀계획이 두 명이어서 경제 상황 어려워도 두 자녀 양육 노력 가능	.055 -.014 .025	.914 .893 .870	-.075 -.001 -.102	.096 .005 -.041	-.044 -.095 -.250	.856 .832 .807	
육아휴직 사용하여 양육하면 되니까 출산휴가 사용하면 되니까 조부모(친지) 양육지원 가능해서 남편과 양육 공동분담 가능해서	.179 .122 .103 -.118	-.062 -.104 .056 -.053	.854 .809 .682 .587	-.061 -.183 -.149 -.026	.172 .142 -.328 -.014	.799 .735 .608 .362	
남편이 장남이라서 아들 원해서 시부모님의 권유로 남편이 독자라서 아들 원해서	-.023 .061 .025	-.052 .034 .079	-.083 -.236 -.043	.908 .830 .798	-.125 -.130 -.007	.850 .767 .646	
부부(엄마) 연령상 조기 출산 원해서 터울 간격이 있어 양육 여유가 생겨서 터울 간격 줄여 조기 양육 원해서	-.132 -.171 -.204	-.216 -.241 .042	-.001 -.018 .070	-.058 -.046 -.268	.919 .884 .481	.912 .872 .352	.769
고유값	4.074	3.373	2.406	1.592	1.305	총분산(%)	
분산(%)	19.096	14.928	14.386	13.611	12.978	74.999	

개인적 자녀가치관 요인 중 ‘종교적인 이유로’의 문항을 제외하고 요인분석을 한 결과 분석된 출산의도 항목이 각각의 요인에 적합하게 측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된 총 분산은 74,999%로 요인 1인 정서적 자녀 가치관 요인이 가장 높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유값은 정서적 자녀 가치관 요인이 가장 높았고, 개인적 자녀 가치관 요인, 자녀양육지원 요인, 사회적 자녀 가치관 요인, 인구학적 요인 순으로 나타남으로써 고유값이 높을수록 중요성이 증가한다고 볼 때, 정서적 자녀 가치관 요인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개인적 자녀 가치관 요인 역시 고유값이 높은 것으로 볼 때, 맞벌이 아내의 경우 출산의도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2) 맞벌이 남편의 둘째 자녀 출산의도 요인분석

맞벌이 남편의 출산의도 5개요인 18문항 중 맞벌이 아내와 같은 이유로 ‘종교적인 이유로’ 문항을 삭제한 총 17문항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9> 맞벌이 남편의 출산의도 요인계수 행렬과 신뢰도 계수(N=148)

문 항 내 용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공유치	α 계수
	정서적 자녀 가치관	사회적 자녀 가치관	개인적 자녀 가치관	인구 학적 특성	자녀 양육 지원		
혼자는 외로우니까 서로 의지하고 보완해 줄 수 있어서 아이를 키우면서 둘째 필요성 느껴서 첫째아의 정서부족을 보충할 것 같아서	.944 .934 .847 .808	.097 .053 -.003 -.025	.045 .055 -.046 .081	-.131 .017 .050 .366	-.038 -.038 -.101 -.249	.921 .879 .733 .856	.900
장남이라서 아들 원해서 아들을 낳고 싶어서 부모님의 권유로 독자라서 아들 원해서	-.010 .038 .077 .027	.946 .896 .812 .740	-.030 -.073 .060 .091	-.082 -.052 -.253 -.043	.023 -.032 .051 .069	.903 .813 .735 .562	
자녀양육은 즐겁고 행복해서 원래 자녀계획이 두 명이어서 경제 상황 어려워도 두 자녀 양육 노력 가능	.064 .043 -.020	.060 -.018 -.001	.915 .894 .890	-.070 -.117 -.032	.035 -.135 -.118	.851 .833 .807	
부부(엄마) 연령상 조기 출산 원해서 터울 간격이 있어 양육 여유가 생겨서 터울 간격 줄여 조기 양육 원해서	.127 .084 -.051	-.039 -.098 -.100	-.080 -.094 -.051	.869 .817 .629	-.166 -.124 .006	.806 .738 .411	
아내와 양육 공동분담 가능해서 조부모(친지) 양육지원 가능해서 아내가 육아휴직 사용하면 되니까	-.079 -.087 -.296	.091 .112 -.167	-.071 -.002 -.308	-.109 -.374 .219	.824 .763 .573	.711 .742 .586	.624
고유값	3.797	3.632	2.596	1.770	1.092	충분산	
% 분산	19.265	17.760	15.164	13.330	10.292	75.810	

맞벌이 남편의 경우도 총 분산은 75,810%로 요인 1인 정서적 자녀 가치관 요인이 가장 높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유값은 정서적 자녀 가치관 요인이 가장 높았고, 사회적 자녀 가치관 요인, 개인적 자녀 가치관 요인, 인구학적 요인, 자녀양육지원 요인 순으로 나타남으로써 맞벌이 아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서적 자녀 가치관 요인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맞벌이 남편의 경우 사회적 자녀 가치관 요인이 고유값에서 미미한 차이를 보임으로써 아내의 경우보다 남아선호에 의한 출산의도 경향이 엇보이는 사회적 자녀 가치관 요인이 출산의도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2) 맞벌이부부의 둘째 자녀 출산기피 요인분석

(1) 맞벌이 아내의 둘째 자녀 출산기피 요인분석

맞벌이 아내의 출산기피 5개요인 총 20문항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0> 맞벌이 아내의 출산기피 요인계수 행렬과 신뢰도 계수(N=132)

문항내용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공유치	α 계수
	자녀양육지원	인구학적특성	개인적자녀가치관	직장문화	가계·경제		
좋은 양육자(기관) 선택 어려움	.905	-.055	.023	-.027	.059	.827	.899
양육자 부재	.902	-.067	.071	.038	.103	.835	
두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역할 부족	.792	.218	-.270	-.117	.097	.772	
일/육아 병행 시간 부족	.748	.324	-.049	-.077	.047	.676	
일/육아 병행 부담	.711	.539	-.135	-.075	.042	.821	
첫아이 양육스트레스	.655	.417	.065	-.048	.090	.617	
두 자녀 조부모 양육 지원 부담	.635	-.221	.178	.126	-.141	.519	
부모 연령이 높아서	.104	.894	-.341	-.074	.026	.933	.962
만혼으로 인한 부모 연령 때문에	.134	.877	-.301	-.079	-.048	.886	
아이와 터울 간격이 높아서	.092	.833	-.468	-.067	.066	.930	
알맞은 가족계획이라고 생각해서	.023	-.309	.929	.037	-.002	.960	.953
경제적으로 편안한 노후 원해서	-.003	-.211	.908	.060	-.035	.873	
두 자녀 양육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 부담	.012	-.299	.899	-.007	.051	.899	

직장생활이 출산보다 우선	-.055	-.068	.029	.936	.122	.899	.825
직장생활의 원활함 우려	-.059	-.079	.098	.904	.127	.853	
임신으로 인한 직장 사퇴의 우려	-.101	.002	.025	.731	.161	.571	
육아휴직의 사용 접근성 곤란	.099	-.053	-.030	.602	.120	.390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059	-.084	.091	.219	.930	.932	.912
경제적으로 두 자녀 양육비/교육비 부담	.083	.064	.000	.127	.917	.868	
수입은 일정한데 두 자녀 양육비/교육비	.051	.063	-.087	.243	.849	.794	
부담							
고유값	5.827	3.929	3.353	1.642	1.104	총분산	
% 분산	21.173	15.966	15.413	13.896	12.822	79.272	

분석된 맞벌이 아내의 출산기피 항목은 각각의 요인에 적합하게 측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된 총 분산은 79,272%로 요인 1인 자녀양육지원 요인이 가장 높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유값은 자녀양육지원 요인이 가장 높았고, 인구학적 요인, 개인적 자녀 가치관 요인, 직장문화 요인, 가계·경제 요인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양육지원 요인의 경우 고유값이 다른 요인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맞벌이 아내의 출산기피에 있어 자녀양육지원 요인은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인구학적 요인 역시 고유값이 높은 것으로 볼 때 연령, 만혼, 터울 등은 출산기피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 맞벌이 남편의 둘째 자녀 출산기피 요인분석

맞벌이 남편의 출산기피 5개 요인 총 18문항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된 맞벌이 남편의 출산기피 항목은 각각의 요인에 적합하게 측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된 총 분산은 82.368%로 요인 1인 자녀양육지원 요인이 가장 높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유값은 자녀양육지원 요인이 가장 높았고, 인구학적 요인, 개인적 자녀 가치관 요인, 직장문화 요인, 가계·경제 요인 순으로 맞벌이 아내의 경우와 동일한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맞벌이 남편의 경우 자녀양육지원 요인과 인구학적 요인이 고유값에서 미미한 차이를 보임으로써 아내의 경우보다 두 요인 모두 출산기피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11> 맞벌이 남편의 출산기피 요인계수 행렬과 신뢰도 계수(N=132)

문항내용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공유치	α 계수
	자녀 양육 지원	인구 학적 특성	개인적 자녀 가치관	직장 문화	가계 • 경제		
양육자 부재	.938	.043	.022	.083	-.053	.891	.880
좋은 양육자(기관) 선택 어려움	.927	.069	-.010	.059	-.041	.869	
첫아이 양육스트레스	.809	.048	.051	.026	.031	.662	
일/육아 병행 부담	.764	.519	.024	.055	.009	.857	
두 자녀 조부모 양육 지원 부담	.660	-.222	-.071	-.128	.093	.515	
아이와 터울 간격이 높아서	-.011	.953	-.047	-.012	.032	.911	.939
부모 연령이 높아서	.036	.940	-.094	-.035	-.035	.897	
만혼으로 인한 부모 연령 때문에	.082	.924	-.045	-.054	.015	.866	
두 자녀 양육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 부담	.014	-.112	.903	-.237	.001	.884	.888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038	-.214	.888	-.121	-.008	.850	
알맞은 가족계획이라고 생각해서	.021	-.083	.854	-.098	.073	.751	
경제적으로 편만한 노후 원해서	-.065	.257	.740	.097	.213	.673	
아내의 육아휴직 사용 원활하지 못해서	.015	-.032	-.093	.974	-.038	.959	.970
아내가 직장 그만두는 것이 싫어서	-.009	.025	-.082	.955	-.027	.920	
아내가 계속 직장생활 원해서	.071	-.087	-.157	.944	-.099	.938	
경제적으로 두 자녀 양육비/교육비 부담	.052	-.046	.025	-.146	.940	.911	.835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065	.066	.026	-.143	.897	.834	
수입은 일정한데 두 자녀 양육비/교육비 부담	-.072	-.009	.169	.119	.770	.638	
고유값	3.923	3.629	2.900	2.257	2.117	충분산	
% 분산	19.132	17.340	16.494	16.288	13.114	82.368	

V. 결론 및 논의

그동안 대다수의 출산관련연구가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요인을 설정하고 그 관계의 결과를 통해 영향요인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둬으로써 저출산의 원인분석에 있어 보편적이고 일

반적인 접근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저출산 해결의 실질적 주체인 부모의 입장에서 그들의 출산의도와 출산기피 요인을 찾으려는 접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본 연구는 맞벌이 아내와 남편이 스스로 제시한 출산의도와 출산기피 요인을 탐색하는데 연구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맞벌이부부의 둘째 자녀 출산의도 요인의 경우 정서적 자녀 가치관 요인이 아내와 남편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서적 자녀 가치관 요인은 아내와 남편 모두 요인분석에서 고유값 및 분산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문항의 중요성 역시 비슷하게 나타남으로써 맞벌이부부가 둘째 자녀 출산을 의도하는 경우 가장 영향을 받고 줄 수 있는 요인임을 밝힐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 연구에서 지적된 필요성을 전제로 맞벌이부부의 둘째 자녀 출산의도에 가장 영향력을 주는 요인이 정서적 자녀 가치관 요인임을 밝힐 수 있었다.

둘째, 맞벌이부부의 둘째 자녀 출산기피 요인의 경우 자녀양육지원 요인이 아내와 남편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대체양육지원의 부족과 맞벌이 아내의 일과 육아 병행에 대한 부담이 저출산의 지속적인 영향요인이 된다는 것은 이미 선행 연구를 통해 계속 제시되어 왔다(Ritchter et al, 1994; Rindfuss & Brewster, 1996; Berinde, 1999: 355; Del Boca, 2002; 이용복, 2004; 윤소영, 2005; 홍승아, 2005). 본 연구에서는 이외에도 ‘좋은 양육자(기관) 선택 어려움’, ‘첫아이 양육스트레스’, ‘두 자녀 조부모 양육 지원 부담’, ‘두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역할 부족’, ‘일/육아 병행 시간 부족’ 문항 역시 맞벌이부부의 둘째 자녀 출산기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항임을 밝힐 수 있었다. 특히 요인분석에서 아내의 경우 고유값이 5.827이고 남편의 경우 3.923으로 나타나 아내의 경우 자녀양육지원의 상황이 둘째 자녀 출산 기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음을 밝힐 수 있었다.

셋째, 출산의도와 출산기피의 인구학적 특성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밝힐 수 있었다. 기존적으로 부모의 연령과 터울은 출산기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인식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과 터울이 자녀가치관에 대한 선호에 따라 출산의도와 출산기피의 동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밝힘으로서 자녀출산에 있어서 개인 가치관이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를 규명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두 자녀 양육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면 부부의 연령과 터울 간격의 차이는 극복할 수 있음이 출산의도에서 나타남으로써 향후 부모의 높은 연령에 의한 출산의지를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

체계가 동반된다면 연령과 터울은 출산기피 요인에서 출산의도 요인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보인다.

넷째, 출산기피집단과 출산의도집단의 자녀양육에 대한 인식차이를 밝힘으로서 양성평등 이론에서 본 성평등 수준의 불일치로 인한 일-가정 양립의 역할 갈등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실증적으로 규명할 수 있었다. 즉, 출산기피의 일과 양육 병행 부담이 부부의 성 평등 의식 속에 함께 공동양육하면 둘째 자녀 양육이 가능하다고 전환될 수 있음을 밝힐 수 있었다. 또한 일과 육아의 병행 정도는 객관적인 수치로 평가되지 않으므로 스스로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차이가 일과 육아의 병행이라는 동일한 상황에서 출산기피와 의도로 분리시킬 수 있다고 보여지며, 개인의 내적인 선호가 자녀 양육의 긍정적 분담에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경제적 상황이 출산기피와 출산의도의 동시요인이 될 수 있음이 나타남으로써 경제적 상황에 대한 해석은 상대적 개념으로 인식되어진다는 것을 밝힐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 출산·양육 자체가 부모에게 효용가치를 주는 직접 효용인 소비효용이 경제비용에 대한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개인의 상대적 기준에 의해 빈부의 정도와 상관없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밝힘으로서 자녀의 경제적 효용이론에서 자녀에 대한 경제성 개념을 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동안 경제적 변수에 관한 출산관련 연구 결과가 일치되지 않은 이유가 경제적 상황에 대한 상대적 해석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었다.

여섯째, 남편의 경우 아들을 낳고 싶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그동안 남아선호사상이 출산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이삼식·조남훈, 2000; 이병렬, 2003)결과가 본 연구에서도 나타났다. 특히 대를 잇고 싶다는 가계계승의 의지에서 남편들의 남아선호사상이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곱째, 자녀를 노후대비의 포석으로 여기던 전통적 가치관이 거의 희석되었음이 출산기피의 개인적 자녀 가치관요인에서 나타남으로써 자녀는 부부의 생활에 중심이 아니라 함께 가족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구성원으로 인식되어짐을 밝힐 수 있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효용적 가치로 접근하던 자녀 가치관의 접근에서 벗어나 부모의 개인적인 사고에 의해 자녀 출산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밝힐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나타난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출산행위의 주체인 맞벌이 아내와 남편 스스로가 제시한 출산의도와 출산기피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출산의도와 기피 요인을 매우 구체적이고 미시적으로 밝힐 수 있었다. 특히 기존 맞벌이부부관련 출산연구가 대부분 아내를 대상으로 저출산 원인을 연구해 온 것에서 벗어나 맞벌이 아내와 남편 각각의 출산의도와 출산기피 요인을 밝힘으로써 향후 맞벌이부부의 출산관련 연구에 좀 더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었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주 요인이 아닌 보조적 요인으로 다루어진 자녀가치관이 출산의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혔으며, 아울러 자녀양육지원의 부적절함이 출산기피에 매우 강한 영향을 주고 있음도 밝혔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향후 맞벌이부부가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대체양육환경에 대한 제도적 점검을 통해 출산 및 양육지원 정책의 효율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특히 그동안 출산관련연구에서 자녀가치관을 매우 일반적인 내용으로 접근했는데 향후 자녀가치관에서 밝혀진 관련 내용을 여러 가지 관련 변인과 연결하여 세부적인 영향력을 밝힌다면 출산 당사자를 위한 저출산 안정화 정책의 구체적 수립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겨진다.

이미 우리 사회는 각종 저출산 안정화대책이 수립되어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맞벌이부부들에게 효과적으로 느껴지는 제도가 부족한 실정이다. 제도를 만들지 말고 제도를 이용할 때 고민과 갈등을 느끼게 하지 말라는 맞벌이 아내의 말 한마디가 현행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의 제도에 대한 인식이라고 보인다. 개인별 선호와 개인별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지금의 정책을 수요자의 입장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진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밝혀진 출산의도와 출산기피요인을 근거로 다양한 직업군과 연령, 수입 등 여러 변인을 설정하여 관련변인과의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밝힌 연구가 후속연구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제도를 만드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있는 제도를 잘 이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책진단의 정비가 이루어진다면 저출산 안정화를 위한 기본 토대는 굳건히 다져질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학중·유계숙(2005). 맞벌이부부의 가사 및 자녀양육 분담에 관한 연구 : 억제 및 촉진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가족학회 가족과 문화*, 17(3) 187-219.
- 권태환·김두섭(1998). *인구의 이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경신(1998). 가족 가치관의 세대별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10) 145-159.
- 김수연(2004). 저출산에 대비한 인구복지정책,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영(2002). 일본의 저출산대책의 한계. *한국사회학회 후기사학회대회발표문*.
- 김승권·김민자(2003).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 개발 및 범정부추진체계 수립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서문희(2001).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의 변화양상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조애저(2000).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 외(2004). 저출산/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정책적 대응방안,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김승권(2005).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 *국회도서관보* 42(12) 3-12.
- 김자희(2006). 조직의 제도적 특성이 취업아내의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 *인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정미(2004). 출산율 저하의 원인분석 및 대책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한곤(1993). *한국 출산력 변화의 원인과 전망*. 대구: 영남대학교 출판부.
- 김혜경(2004). 가족/노동의 갈등구조와 '가족연대'전략을 중심으로 본 한국 가족의 변화와 아내. *가족과 문화*, 14(1) 31-52.
- 박병일(2004). 한국의 출산력 저하요인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수미(2005a). 가족내 젠더구조와 저출산-생애주기별 접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박수미(2005b). 가족내 성평등(Gender Equity)과 저출산,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 102호* 36-44.
- 박숙자(2003). 저출산 형상의 원인과 대책방향, *동덕아내연구*, 제8호, 동덕여자대학교 한국아내연구소.
- 박현주(2006). 기혼 아내의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변준한(2003). 기혼 유배우 아내의 자녀수 결정요인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지원·이기영(1997). 사무직 기혼여성의 출산 후 취업지속 결정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2). 99-110.
- 서한샘(1998). 출산력과 교육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지미·차은영(2000). 세대간 동거와 기혼 아내의 노동공급, 제2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논문집, 62-83.
- 손승영(2005). 한국사회 저출산 원인과 가족친화적 정책대안, *가족과 문화*, 7(2) 285-316.
- 윤소영(2005). 저출산 가정의 출산율과 아내취업경험,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2) 159-167.

- 윤옥화(2004). 한국의 저출산 현황과 출산장려 방안에 관한 연구, 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희은(1996). 자녀 양육비 분석을 중심으로 가정 내 성인 대 자녀의 지출배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은기수(1997). 동서양 탈물질적 가치관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어수영(1997). 가치변화와 삶과 정치-한국, 일본, 미국, 멕시코 4개국 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이병렬(2003). 저출산의 성차별적 원인과 가족복지정책. 국회도서관보 (12) 63-79.
- 이삼식·조남훈(2000). 인구개발에 관한 UN 행동강령의 추진 실태와 발전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 외(2005).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2005). 저출산시대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보건복지포럼 4월호.
- 이소영(2007). 기혼여성의 자녀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 및 출산장려정책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용복(2004). 보육서비스가 기혼 여성의 출산의도와 출산결정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인숙(2005). 저출산의 요인분석과 사회복지적 함의, 한국사회복지학, 57(4) 67-90.
- 이재경 외(2005). 저출산의 젠더분석과 정책대안 연구, 보건복지부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정책보고서.
- 이정원(2007). 유자녀 취업여성의 후속출산의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영식(1995). 인구구조의 안정화를 위한 적정출산수준이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창국·김응석(1988). 출산수준에 영향을 주는 개인특성변수의 내부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학회지, (6) 73-83.
- 장혜경 외(2004). 저출산시대 여성과 국가대응전략, 한국여성개발원.
- 전광희(2002). 한국의 출산력 추이와 전망, 한국의 인구 및 주택 심포지움 발표문.
- 전광희(2003). 한국의 저출산 : 추이와 전망, 사회과학연구원.
- 정상훈(2005). 저출산에 따른 여성복지정책의 개선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혜옥(2006). 한 자녀 가정의 자녀출산계획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남훈·김승권(1997).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보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아라(2005). 저출산 대책 마련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희금(1999). 취업기혼여성의 일-가정갈등과 직업 및 생활만족도 : 생산직과 사무직 기혼아내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132(99.2) 145-158.
- 차경옥(2005). 저출산 가계와 출산계획이 있는 가계의 경제구조 비교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2) 137-149.
- 천혜정(2005). 둘째자녀 출산희망에 대한 배우자간 차이와 이에 따른 집단간 특성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3) 25-34.
- 최경수(2004). 우리나라 출산율 하락에 대한 분석, 한국인구학회 전기학술대회 자료집.
- 최현수(2005). 저출산 시대의 여성복지정책의 새로운 방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유미·곽혜경(2004). 현대 한국사회의 출산율 저하와 여성사회참여, *한국생활과학회지*, 13(1) 29-40.
- 통계청(2006). 2006년 사회통계조사 결과.
- Becker, G. (1965). A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Economic Journal*. 75, 493-517.
- Berinde, D.(1999). Pathways to a Third Child in Sweden.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Vol. 15, 349-378.
- Blau, D. B. & Robins, P. K. (1989). Fertility, Employment, and Child-Care Costs, *Demography*, Vol. 26(2), 287-299.
- Brewst, K. L. & Rindfuss, R. R. (2000). Fertility Women's Employment in Industrialized Nations,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 26.
- Castles, F. G. (2003). The world turn down : below replacement fertility, changing preferences and family friendly public policy in 21 OECD countri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London(13) 25.
- Chesnais, J.C. (1996). Fertility, Family and Social Policy in Contemporary Western Europ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Vol.22(4) 729-739.
- Davis, N. J. (1982). "Childless and single- childed women in early twentieth- century America." *Journal of Family issues*(3) 431-458.
- Del Boca, D.(2002). The effect of child care and part time opportunities on participation and fertility decision in Italy.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Vol 15 549-573.
- Esping-Anderson, G.(2000). The Impact of Labour-Force Participation on Childbearing Behaviour Pro-Cyclical Fertility in Sweden During the 1980s and the 1990s.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Vol 16 293-333.
- Frejka, T., and G. Calot. (2001). "The Postponement of births in low fertility countries: An Overview." 'International Union for the Scientific Study of Population Working Group on Low Fertility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Low Fertility: Trends, Theories and Policies', Tokyo: Mauldin.
- Freedman, R. & L. Coombs(1966). Economic Considerations in Family Growth Decisions, *Population Studies*, 20(2) 197-222.
- Hakim, Catherine. (2003a). A New Approach to Explaining Fertility Patterns: Preference Theor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Vol, 29(3) 349-374.
- Hakim, Catherine. (2003b). Public morality versus personal choice: the failure of social attitude surveys,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Vol. 54(3) 339-345.
- Hantrais, L.(1997). Exploring relationship between social policy and changing family forms within the European Union,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13) 339-79.
- Hochschild, Arlie(1989). *The Second Shift*. New York:Viking.

- Kimmel, J. (1998). Child Care Costs as a Barrier to employment for single and married mother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287-294.
- Kinzler, J.(2002). *Path towards a modernization of gender relations, policies, and family building*", Schulze, H-J, et al.(eds), *Family Life and Family Policies in Europ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azear, E. P. & R. T. Michael(1988). *Allocation of Income Within the Household,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ehrer, E. & Nerlove, M.(1986). Female Labor Force Behavior and Fertility in the U.S. *Annual Review of sociology*(12) 181-204.
- Leibenstein, H. (1974). "An interpretation of the economic theory of fertility: promising path or blind alle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12.2). 457-79.
- McDonald, P.(2000). Gender Equity in Theories of fertility Transi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Vol.26(3) 427-439.
- Olah. L. S. (2003). *Gendering Fertility: Second births in Sweden and Hungary*.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22) 171-200.
- Richter, K, Podhisita, C., Chamratrithirong, A. & Soonthomdhada, K.(1994). The Impactof Child Care on Fertility in Urban Thailand. *Demography*, Vol. 31(4) 651-662.
- Ronald Inglehart.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 Chapter 1*,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ainsbury, D.(1996). *Gender, Fertility, and Welfare Stat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haw, L.B. & Shapiro, D.(1987). Women's work plans: contrasing expectations and actual work experience, *Monthly Labor Review*, Vol. 110(11) 7-13.

Abstract

An Exploratory Study on the Intention and the Avoidance of Second Childbirth of Working Couples

Ma, Mi-Jong *

From the researcher's point of view in most of research related to childbirth, the factors has been established and analyzed in order to investigate the cause of low childbirth. But there was no such approach that tried to analyze the intention and the avoidance factors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parents who are actual cores for solving the problem of low childbirth. This study, with recognizing the situation, focused on the aim to explore the intention and the avoidance factors of second childbirth that are suggested actually by husbands and wives of working couples.

Accordingly 1200 working wives and 600 working husbands who have one or two children were made to answer the intention of and to describe the reason avoiding the next childbirth. The descriptions were analyzed being categorized into 5 factors on the basis of previous research. For objectivity and validity of the analyzed factors the screen process of specialist opinion were run three times using Delphi Method. For in-depth approval and contextual equality of the analyzed factors 40 husbands and 40 wives with one child were adopted as focus group and the intention and the avoidance of second childbirth were analyzed case analysis separately. 400 working couples were made to answer the intention and the avoidance of second childbirth and the result was analyzed reliability analysis. So, affective value of child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to all of husbands and wives and in the avoidance of second childbirth, the factor of supplying bringing-up was the most important influence factor to both of husbands and wives of working couples. Accordingly, this study intended to investigate the reason why working couples intend or avoid second childbirth and got results of the intention and avoidance of second childbirth. Through this study it was shown that society should subdivide policies for low childbirth instead of building more policies.

Key Words : the second children, intention of childbirth, avoidance of childbirth

* Director of Incheon Educare Information Center